

광주시, 농업용수까지 끌어다 쓴다

주암댐·동북댐 저수율 20% 아래로...제한급수 초읽기 시, 식수원 확보 총력...장성·담양호 농업용수 활용 협의

광주시가 식수원인 주암댐과 동북댐 저수율이 20% 아래로 떨어짐에 따라(광주일보 3월13일자 1면) 농업용수까지 끌어다 쓰기로 하는 등 추가 식수원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대로 비가 내리지 않고, 대신인 절수운동도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오는 5월까지 제한급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저수율이 여유로운 농업용 저수지에서 하루 1만~2만을 끌어 쓰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영산강 물 하루 3만을 수돗물로 공급한 데 이어 이번달에는 5만으로 수량을 늘릴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하루 40만을 광양, 순천, 여수로 내보내는 섬진강 농업용수 수량을 늘려 주암호의 수돗물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섬진강 물의 하루 공급 총량을 늘리면 주암댐에서 내보내는 농업 용수량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식수

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주암댐은 전남 11개 시·군, 광주 서·남·광산구 수돗물과 여수·광양 산단 농업용수를, 동북댐은 광주 동·북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12일 단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가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이대로 비가 더 내리지 않으면 주암댐은 5월 말, 동북댐은 6월 말 고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농업·공업·생활용수 등 영역이 분리된 수자원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스마트워터그리드의 핵심"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과 함께 전남도와 협의해 해수 담수화 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의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용역 결과 지산 나들목(IC) 진출로가 일반적인 방식보다 구간 진출 실패율,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3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순환도로 지산(IC) 나들목 전경.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지산IC 진출로 사고위험 최대 14.3배 높다

VR 주행 실험...IC 진출 실패율 2.4~8배 '사실상 개통 불가' 사후 처리 방안·예산 낭비·구상권 청구 등 각종 후유증 예상

원격 진출 방식으로 설계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IC) 진출로가 일반적인 방식보다 구간 진출 실패율,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77억원 짜리 IC 진출로 개통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도 높은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행행태 분석, 교통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했다. 터널 없이 시야가 확보된 일반적 진출로와 대비해 우측 진출 방식, 좌측 진출 방식, 노면 유도선 등 보완 1안, 시선 유도봉까지 설치한 보완 2안 등 4가지 대안의 사고 위험, 차량흐름 분석 등을 통해 안전성을 평가했다.

운전자 가상현실 주행 실험에서 지산IC 진출 실패율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 진출로 대비 4개 대안 실패율이 2.4~8배 증가했다.

실패율은 일반적 진출로에서 5%였지만 우측 진출 35%, 좌측 진출 40%, 보완 1안 12%, 보완 2안 16%로 올라갔다. 인근 터널과 진출로 간 거리가 짧아 좌·우측 진출 방식과 관계없이 진출 실패율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 IC 진출로를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인 것으로 입증됐다. 주행 속도 분석에서도 좌·우 진출 방식 모두에서 급감속이 나타나 사고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교통사고 예측 분석 비교 결과는 4개 대안에서 일반적 진출로 대비 9.9~14.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 차량간 영향을 주는 상호 횡수도 진출로가 없을 때보다 2.7~7배 늘어났다.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IC 진출로 개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미 개통 불가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거액을 들여 준공하고도 개통조차 못하게 된 시실의 사후 처리 방안과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문책, 구상권 청구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애초 오른쪽 진출 방식으로 설계됐다가 왼쪽 진출 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설 등도 흘러나옴에 따라 철저한 감사가 요구된다.

지산 IC는 양방향 총 길이 0.67km, 폭 6.5m로 개설돼 2021년 11월 개통할 예정이었으며, 설계와 보상은 광주시(6억원), 공사는 제2순환도로 1구간 민자 법인인 광주순환도로투자(71억원)가 맡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4개 시·군 '세계도자기엑스포' 공동추진

강진·목포·영암·무안과 착수보고회...국제행사 기준 대응 마련

전남도와 강진, 목포, 영암, 무안 4개 시·군이 '전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함께 열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전남도와 4개 시·군 관계자는 최근 강진군청에서 세계도자기 엑스포 공동 개최를 위한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7월 김영록 도지사와 강진군 강진군수 면담에서 엑스포 공동 협력을 약속한 뒤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

착수 보고회에서 전남도와 4개 시·군은 연구용역을 벌여 국제행사 승인 기준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박물관에 대한 기본 구상을 갖추고, 다른 지자체의 도자 비엔날레에 대한 차별화를 꾀할 방침이다.

'전라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된다.

다. 앞으로 전남도와 4개 시·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서남부권은 월등한 기술력과 풍부한 원재료를 바탕으로 무안·목포·영암·강진으로 이어지는 전국 최대 도자 산업 집적단지를 형성해왔다. 이 권역은 전국 도자기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도자기 중심지이지만, 경기도보다 인지도가 낮았다. 전남도와 4개 시·군은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로 전라남도 도자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도자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진군은 "전남도와 4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면 전남도 세계도자기엑스포 개최는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 서남권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자 역사를 새롭게 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전남도, 인도 시장개척 30만 달러 수출계약

905만 달러 수출상담 성과

전남도가 최근 인도 모바일과 뉴델리서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신시장 개척 활동을 벌여 30만 달러 수출계약과 905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두는 등 인도시장 수출 고부진을 마려했다.

올해 처음 추진한 인도 시장개척단은 농수산식품, 케이(K)뷰티 등 도내 중소기업 10개 사가 참여해 89개 현지 구매자와 1대1 상담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섰다.

인도는 14억 인구의 세계 최대 거대 소비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전담이 지속 개척해야 할 포스트 차이나 핵심시장이다.

이번 개척 활동에서 국내 김 전문 기업인 완도망영어조합법인인 모바일 수출상담회에서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네이처퓨어코리아(주)는 인도 식약처 인증 획득을 위한 업무협약 성과를 거뒀다. 파형양판 제조 기업인 ㈜픽스는 130만 달러 규모의 수출길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최근 인도는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소비자 품질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면서 제품 가격이 다소 높아도 품질이 우수하면 선택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번 시장개척단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한국 제품 중 하나는 어업회사법인 바다손에(주)의 김부각 스낵이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한국 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신원군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남 기업이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해 기쁘다"며 "수출계약을 한 업체는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고, 상담 성과가 예상되는 업체는 수출계약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곧 '권고'로 전환

15일 중대본서 시기 결정...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처방해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제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정 단장은 "대중교통의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자문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면서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져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는 곳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를 먼저

해제하는 것에 대해 자문위에 의견을 구했고, 자문위는 지난 7일 논의를 거쳐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 중대본에서 구체적인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 단장은 다만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는 "팬데믹이 끝나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또 이날 브리핑에서 파스르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복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코로나19 치료제도 독감처럼 망설임없이 처방되는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처방률은 35%로 정체돼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명품 매장가맹점 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분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분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2023 고소득 추천 목록

두름		민두름 참두름	가시 없는 민두름, 참두름, 정장두름은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포도		루비로망	직경이 거봉포도 크기의 2배 (3cm, 무게20g, 당도 18브리스 이상)
감		감풍, 원추 태추단감 슈퍼대봉	신품종, 추위에 강하고 슈퍼단감 배 맛이 나는 단감 중에 최고! 대봉중에 맛이 뛰어나 식재료를 많이 합니다.
임나무		민임나무 가시없는 임나무	가시 없는 민임나무 가시 있는 것보다 수확이 2배가 나오고, 효능이 같습니다.
호두		신품종 호두	주기결실, 열매가 크고 속이 짙 차면서 가피가 얇아 손으로도 잘 부서집니다.

사과, 신품종 호두, 신품종 유실수 등 품종이 다양합니다. ※2023년 인기 품종으로 조기 품종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무는 "감을농원"과 상담하세요!
묘목 식재 및 재배 관리까지 무료교육,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휴경지 노는땅 상담해드립니다.

감을농원

모목상담 : 010-3121-7676
문의전화 : 053-856-1144
경북 경산시 해안동 화성로25 · 농협 312-3121-7676-91 (예규주·정준호)



3월18일~19일(토·일)

▲ 광주호신회 3월18일~19일(토·일) (제 647차 정기산행 해파랑길 28.29코스 1박2일) 오전 06시 30분 중앙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15분 예술회관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1년

光州日報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